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 나눔터

1998. 6 / 계간 나눔터 제26호

· 피난처 / 일천구백구십팔년 유월 신요일 · 피난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피난처 / 최영애 · 민혜이 / 김보연, 김이운상 · 편집 / 태성규·류·케이선

이런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많은 성추행범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는 상담실 접속가상과 현실의 피비우스피-온라인 성폭력

성폭력문제연구소 서울대 우조교 사건 대법원 승소에 부처

기획 개소 7주년기념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

해외소식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

-미국의 제도적 장치

성문화 읽기 여성주의 만화가 아름다운 세상

-아홉번째 천국을 찾아서

삶 이야기 단풍나라사람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예의'

나눔터 게시판

### 주간상담원 모꼬지



지난 1월 16, 17일 양일간 주간상담원 8명과 상담원 자녀들 5명이 겨울모꼬지를 다녀왔다. 평소에 각요일로 나누어 근무하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하다가, 밤을 지새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원으로서의 보람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었다.

### 자문위원 워크샵



지난 2월 26일 본상담소 자문위원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이백수 변호사, 김현식 산부인과 전문의, 이경미 책임연구원(이원숙 연구소 소장 대행), 박미옥 형사, 이철원 임상심리전문가가 지난 한해동안 본상담소를 지원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평가하였다.

### 제14기 나눔이모집 및 교육



본 상담소의 사무지원활동을 하고있는 나눔이가 14기 13명을 새로 모집했다. 나눔이의 교육은 3월 28일, 4월 10일에 있었고, 이 때는 상담소에 대한 소개, 자원활동, 나눔이의 역

할,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폭력 상담의 특성과 또래 상담자로서의 주의점 등이 다루어졌다.

### 노래도적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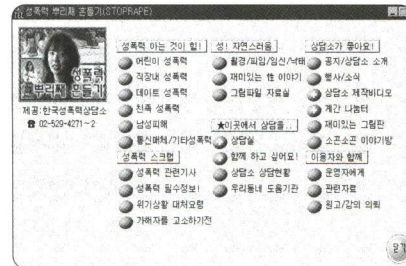
1997년을 단독콘서트로 마무리한 노래도적은, 2월 23일에 있었던 [우조교 성희롱 사건 승소에 관한 평석회 및 축하공연]에 참석, 축하의 공연으로 한 해를 열었다. 3월에는 일박이일의 모꼬지를 통해 우리의 소리를 모았으며, 4월 24일에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시위]에 참석, 그 뜻을 함께하는 공연을 가졌다.

### 고등학교 성교육 실시



모 여자고등학교 '여성문화연구반' 특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학기동안 장기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월1회씩 총3회를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하기, 자신의 '성인식'을 확인하고 총체적 성개념 익히기, 모듈별로 주제(피임, 성관계, 성충동, 자위, 순결)조사하고 발표하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 유니텔 IP메뉴 개편 / 천리안 IP개설



본 상담소의 IP가 새롭게 단장했다. 윈도우형 유니텔 환경에 적합한 메뉴로 개편함과 동시에 IP명도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go stoprape)]로 바꾸었다. 정보가 보다 전문화되었고, 이미지 정보도 많이 추가되었다. 상담

실 이용도 훨씬 편리하게 구성되어 PC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천리안에서도 [성폭력뿌리째 흔들기(go stoprape)]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 제9기 지킴이 교육



1993년 1기 교육으로 시작한 지킴이 교육이 이제 9기 교육생들을 맞게 되었다. 4월 24일에 시작되어 5월 현재 55명의 예비지킴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료식을 거치면 한달여의 전화·PC상담 실습을 한 후, 7월부터 야간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 심리상담지원위원회

지난 4월 29일 본 상담소 회의실에서 제3회 심리상담지원위가 열렸다. 본 상담소 상담부와 채규만, 이철원, 오현숙, 현혜순 자문위원이 참석하여서 상담지원방법, 열립터 심리검사계획, 근친성폭력피해자 성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개소7주년기념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 개최



본 상담소 개소7주년기념행사로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성폭력 상담원 57명이 참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상담·면접상담·집단상담·연계지원상담에 대한 사례연구와 수퍼비전·실습·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본 상담소는 여성단체 연대활동으로 3·8여성대회(3월8일), 여성활동에 촉구대회(4월 30일)에 참가하였다.



# 그 많은 성추행범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정희 월간사회평론 길 기자



**호** 첫 한 길을 홀로 걷다가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아담' (성기노출증 환자)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했던 경험을 못 여성들은 가지고 있으리라. 그때의 그 섬뜩함이란. 그러나 그것은 만원버스나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에서의 '혐오스러운 접촉'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인 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혐오스러운 접촉의 다양한 행태들을 떠올리면서 공동의 적(?) 또한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수의 남자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결백하다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그 많은 성추행범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면, 그 몇 안되는 성추행범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을 커버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는 말인가.

지난 2월 26일자 신문에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와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이 면담을 통해,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에 대해 육성으로 경고방송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신문에 보도된 방송의 내용은 "복잡한 열차내에서 성추행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성추행은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인권을 모독하는 범죄로 벌금 3백만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여성민우회측에는 대부분 여성들의 격려전화가, 그리고 지하철공사측에는 1백 퍼센트 남성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여성민우회측에서는 남성으로부터의 전화도 두 통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남성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기도 어떤 아줌마한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앗, 어떻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일까). 당시 여성민우회의 박정숙 간사는 "우리도 성추행을 문제삼은 것이지 여성만이 당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렇다면 굳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지하철 공사측에서는 많은 남성들의 항의민원을 근거로 들어 육성 방송의 내용을 이미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한 것이다. 방송된 문구는 이렇다. "복잡한 열차내에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열차내에서 옆사람

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복잡한 열차내에서는 당연히 옆사람에게 조금은 불편을 주게 되지 않는가? 신문을 접지 않고 읽으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 다?)." 이에 대해 박정숙 간사는 신문보도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다고 했다며 "성추행이라는 분명한 문구가 없을 때 이 방송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무엇보다 성추행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라는 인식이 없어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하거나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여성들도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률은 세계2위고, 여러 종류의 성범죄 문제가 순전히 여성의 지구책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현재 성추행과 관련해 벌금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더구나 성추행범을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뿐더러, 잡았다고 해도 되려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파렴치 스타일도 있어 힘든 꼴을 당하는 여성들도 더러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방송은 없지만 성추행 경고 포스터나 스티커가 역마다 부착되어 있고, 주요 역에는 성추행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는 물론 현장범을 그 자리에서 검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성추행범의 무법천지인 셈이다.

지하철공사측에서는 "모든 남성들을 성추행 행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뭐 방송까지 하느냐"라는 민원 때문에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남성들이 잠깐 불쾌해 하는 것으로(그의 아내거나 혹은 딸일 수 있는) 많은 여성들이 성적 모욕감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불편은 당연히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첩신고 방송한다고 지하철 이용자들을 다 간첩으로 보는가. 그래서 불편한가. 이 참에 아예 간첩신고 방송 대신에 성추행 경고 방송을 넣는 것은 어떤가. 이왕 하는 김에 말이다.

(이 글은 월간사회평론 길 제100호에 실린 기사임을 밝힙니다.) 유

# 접속:가상과 현실의 뒤편 스텝 온라인 성폭력

정진욱 본 상담소 상담4부장

### 〈사례1〉

## 좇대가리(AA)님이 들어오셨습니다##  
 AA(좇대가리) 야그들아 좇방망이질 할 때까지 꺼져라  
 BB(bb) AA님..음... 대화명을 바꾸심이 어떠하실지.  
 CC(cc) ???  
 [귓속말] AA(좇대가리) cc아 좋은말 할 때 박자... 박으면 재미가 있을꺼야 짹짹.. 짹  
 BB(bb) 삼가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CC(cc) AA님 .../오 빠 .....이 상 한 사 람 이 야.....  
 CC(cc) 아무래도 게시판에 올려야..  
 CC(cc) 후..... 이런 일을 또 당하다니.....  
 BB(bb) cc야 난 얼른 가.  
 AA(좇대가리) 올려 올려 올려  
 DD(dd) 좇대가리 화이팅  
 (인터넷 \*\* 사이트內 대화실 中)  
 ※AA 등은 ID이고, 괄호안은 대화명입니다. 익명처리를 위해 변조했음을 알립니다.

### 〈사례2〉

Greg0987: 이봐, 그 여자 다리를 잡아.  
 Panther: 잡았어.  
 Robodude: 내가 그 여자를 꼼짝 못하게 놀렸어.  
 Greg0987: 그 여자도 나쁜 걸 원하고 있어. 안그래, 씨팔년?  
 Brenda: 내게 그걸 줘. 내게 그것, 좋은 걸 줘.  
 Panther: 내가 엄청 세게 넣어주지, 니가 벌리도록 찢을 거야.  
 Bigcock: 거칠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 멍청한 년아? Greg, 그 여자 얼굴을 갈겨, 그 여자를 때려구.  
 Pussyeater: 꼼짝마, 안그러면 내가 이 칼로 너를 찢어버릴 거야.  
 Greg0987: 내가 먼저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계속 하라구. 꼼짝마, 그렇지 않으면 언어맛을 줄 알아, 씨팔년아.  
 (AOL(America Online's)의 대화실에서 다섯명의 남성이용자들이 여성을 강간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즐기는 中)

### 〈사례3〉

그 남자는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내가 꼭 아는 사이인 것처럼 내게 말했다. 나는 '누군데 날 어떻게 알지?' 하고 물었다. 그 순간 그는 방안에서 대화하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게 말했다. '내가 당연히 널 알지. \*\*아 너랑 나랑 이틀 전에 여관에서 잤잖아.' 처음 당해본 일이라, 게다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차에 그 말을 들으니 손이 떨려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미친놈' 하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내게 심한 말을 마구 퍼부었다. '왜 그래, \*\*아, 그날 니가 나를 위해 온갖 서비스를 다 했던 것 기억안나?'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흥분한 상태로는 키보드를 치는 일도 힘들었다. 무언가 나도 그 남자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가 채팅을 그만 둔 것을 알아,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쪽지를 보내왔다. 아마 네 통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빠지냐? 내숭같은 거 떨지마.' 등의 내용이었다.

(국내 모 통신망의 온라인성폭력 피해자 진술서 中)

컴퓨터 통신의 발달 초기에 통신공간은 현실공간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여성, 노동자, 장애인 등)들에게 기존의 권력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컴퓨터 통신은 가슴 설레는 대안이며, 국민정부가 내세우는 정보화의 깃발은 꿈 속의 연인을 보듯 그렇게 환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소외된 자들에게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인 듯하다. 가상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두려움과 흥분을 애써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통신에 겨우 접속한 여성은 통신내의 공간을 이미 자본가가, 백인이, 남성이 장악했음을 인지할 시간도 없이 현실공간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옮겨진 온라인에서 또 다시 성희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



시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경우도 온라인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성폭력은 주로 통신내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컴퓨터통신 나무누리에서 조사한 바<sup>1)</sup>에 따르면 응답자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남성의 경우 6%가 직접 가한 적이 있고, 여성의 경우 무려 56%가 직접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화실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를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방이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면 지속적으로 쪽지와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우편이나 전화같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초기성폭력의 연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유형이다.

가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느정도 친해지면 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고 학교, 사는 곳 등 개인 정보를 알려고 한다. 또 “지금 혼자냐?”, “어떻게 생겼냐?” 라는 질문을 하며 직접 만나기를 고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한다기보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위협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는 달리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했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의 하나는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은(사례3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프라인에서의 피해후유증과 유사하게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 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의 잘못된 통념은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일(전자우편)과 쪽지(메모)를 보내며,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음란전화를 받을 때 느끼는 위협을 생각해본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국내의 모 통신내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

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다. 본 상담소에 의뢰된 사례에서도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강간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온라인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①대화내용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②그리고 나서 가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개 그들의 공격목표를 통신에 익숙치 않은 초보이용자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그리고 나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가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전자우편,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대화실 상황 갈무리, 모든 세세한 가해 기록(날짜, 시간 등),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증거로 모아두어야 한다. 사례3은 피해자가 통신사용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통신회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를 한다면 갈무리한 자료를 해당 통신회사의 신고센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ID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sup>2)</sup>조항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법적 대응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온라인성폭력의 피해자가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온라인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온라인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재생산되어 오프라인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기를 기대하는 가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멈추라고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보화에 대한 장미빛 꿈을 가지길 원한다면 현실공간에서 지난한 작업을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여성을 위한 자유롭고 즐거운 영역 확보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1) 조사기간 : 98년 4월16일~22일 / 총 참여자수 : 1,368명(남891, 여477) / 대상 : 나무누리 이용자  
 2) 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온라인성폭력 대처방법>

### 1. 통신회사별 대처방법



- 신고: ①초기화면의 1. 도우미→43. 신고센터→[11. 대화피해 신고(go SINGO)]  
②대화방에서 /save(이후의 모든 대화내용이 바로 신고센터로 전달됨), 끝낼 때는 /end
- 메일수신거부: 전자우편→11. 편지수신 거부자 등록



- 신고: 초기화면의 1. 안내/가입→22. 서비스상담실→[9. 불량이용신고(go TOJIGI)]
- 대화수신거부: 대화실에서 /EX <상대방ID> (해당 이용자가 하는 말을 수신하지 않음.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 모두가 한꺼번에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가해자를 따돌리면 적절한 효과)
- 해당이용자 퇴장시키기: 대화실에서 /OUT <상대방아이디> (단, 해당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함께 수행해야만 효과)



- 신고: 초기화면의 통신광장→대화실→대화실 고발센터
- 메세지수신거부:상단메뉴바에 있는 메뉴중 [개인영역]→[메세지 허용 여부]를 클릭 한 후  
1:1 대화 허용/대화 초대 허용/쪽지 받기 허용에 표시



- 메세지수신거부: ME y/n
- 대화수신거부: 대화실내에서 /EX <상대방ID>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모든 통신에서 go ICEC→[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센터

### 3. 갈무리하는 방법

- 새롬데이타맨프로/이야기 프로그램 이용자: Alt+L을 누르면 다음 화면부터 갈무리 시작
- 각 통신회사의 윈도우용 프로그램 이용자: 메뉴바에 있는 대화내용저장 버튼을 이용하거나 대화내용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복사하여 새 파일에 붙여넣기를 실행. (\* 갈무리한 파일은 절대 편집하면 안됨.)

#### [법률상담]

#####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에 착수하는 친고죄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하기만 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나뉩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형법 등 기존의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효과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강도·살인 등과 같이 성폭력 범죄도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라도 고발·고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위계 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으로 이 경우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안 날로부터 1년)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수차례의 강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피해 후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일 경우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친족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강도강간등으로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친고죄와 달리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고소취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정유석·본 상담소 상담2부장 정리)



# 서울대 우조교 사건 대법원 승소에 부처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 이원숙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소장

그것은 한마디로 감격이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짧지않은 5년여 기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숨을 죽이고 대법정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우리 모두의 얼굴은 안도와 기쁨으로 상기되었고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으며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

물론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우리가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미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여성운동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용기와 고통의 산물이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가슴벅찬 것이었다.

## 1. 서울대 우조교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대법원 승소를 축하하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우조교의 고집과 공대위의 무모함이 오늘의 역사적인 승소를 창출해냈다고 지적하였다. 그만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무에서 유를 창출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심소장을 접수한 1993년 10월, 1심 판결 1994년 4월, 항소심 판결 1995년 7월, 그리고 대법원 판결 1998년 2월 10일이라는 장장 5년 가까운 거대한 드라마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승소는 우리 모두에게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쁨에 잠겨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미흡한 점들을 고찰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규명해야 한다. 바로 이런 노력이 있을 때에 우조교 사건의 승소가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승소 축하연에서 이은영 교수(한국의국외대학교 법학과)는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의를 크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남성적 편견이 아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여성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점, 둘째, 고등법원이 우조교가 '명시적으로 거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데 비해 대법원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반드시 명백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대법원은 신체접촉뿐 아니라 언어적("요즘 누가 시골치러쳐

럼 머리를 땀고 다니냐"), 시각적(위 아래로 훑어봄) 성희롱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순 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성적 괴롭힘' 이라고 하여 성희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은 '성희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사법사상 시민의 사법참여 및 소송지원운동에서도 획기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영희 교수(한양대학교 사회학과)도 우조교 사건은 여성학자들과 여성운동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공동대응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런 문제를 이해해주고 동조해 주는 남성들의 적극적 협조 역시 귀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판결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여성계의 기대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성희롱의 개념과 고용관계의 존재, 상대방의 동의여부, 고용조건에 미친 영향 등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제기될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희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일할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판결은 국가와 서울대총장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선진국과는 달리 사용자 책임과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 신고수가 행한 성적 행동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사용자인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할 수 있으나, 성희롱 행위가 사무집행과 무관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 또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성희롱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 2.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힘든 장거리 장애물 경기같았던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요인은 무엇보다 우조교,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



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변론인 세 개의 축이 하나로 엮여져 누구하나 흠어짐이 없이 훌륭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5년이라는 긴 장정을 함께 떠난 팀 플레이였다는 점이다. 각각이 서로에게 갖는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5년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지치지 않고 견디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번째 승소 요인은 우조교라는 훌륭한 원고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조교는 성희롱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 작성, 증인 확보 등의 일차적 역할을 넘어서 외국의 성희롱관련자료 수집, 성희롱 외국서적 번역, 각종 법정제출자료를 공증 받는 일 등의 사무업무까지 분담하며 그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들을 참으로 의연하게 버텨주었다. 한 젊은 여성으로서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술한 의혹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준 우조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던 것이다. 우조교는 훌륭한 원고가 좋은 판례를 남긴다는 말을 실례로 보여 준 셈이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이 사건은 탁월하면서도 헌신적인 변론인팀(박원순·이종결·최은순 변호사)을 가졌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1심, 2심, 3심 변론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성희롱이라는 용어조차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외국의 성희롱 입법례를 찾아내고,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과 항소·상고 이우서 작성 등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때로는 인지대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우조교가 힘들어 할 때마다 늘 위로와 격려로 우조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희롱 행위를 불법행위임을 법적으로 담보해낸 것은 이들 법조인들의 탁월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마지막 승소 요인으로는 공대위의 결속력과 추진력을 들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 성희롱 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본 상담소 등 성폭력관련 여성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 성희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모여 구성된 공대위는 학생단체와 여성단체라는 이질성을 걸림돌이 아닌 하나의 훌륭한 디딤돌로 활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신뢰 그리고 굳은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군대, 졸업, 유학, 학생회 임기만료 등의 공대위 학생들의 신변변화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여성단체들 역시 조금씩 담당 간사들의 개인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어지지 않는 결속력과 인간적 친밀감으로 똘똘 뭉친 공대위였다. 공대위 활동은 크게 법정지원활동과 이 사건의 진상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를 추구하는 대시민운동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재판에 필요한 증인 확보, 설득작업, 진술서 작성, 외국에서의 성희롱 판례 확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거리행진, 법정 앞 시위, 세미나, 재판부에 보내는 의견서 작성, 항의문 발송, 시민 서명운동, 1·2심 판결문에 대한 전문가 평

석회 등을 전개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희롱 실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이 사건을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사회적 사건으로 이슈화 시켜냈다. 또한 성희롱이 여성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여성단체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대위는 여성학자들과의 실질적 연대활동을 통해 운동의 실천현장과 학계와의 공동대응의 효과와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또하나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 아니라, 하버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가있던 본 상담소 前총무 임순영 선생의 노력으로 하버드법대생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공대위 활동 영역의 폭을 넓히고 해외 관련단체와 지지자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보여준 셈이다.

본 상담소 역시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상담소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집약,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보편적 성희롱 행위양식과 보복 행태를 밝혀내어 이번 사건에 쏟아졌던 많은 의혹들을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각종 시위와 서명운동에 상담소의 법정지원팀, 지킴이, 나눔이, 상담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대위 활동에 힘을 불어넣었으며 최영애 소장, 장윤경 사무국장은 각기 공대위 공동 대표와 주요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대위와 우조교, 법조인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다양한 전략개발, 외곽 지원세력과의 연대에 힘을 합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의와 그 효력을 실제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성폭력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관습, 직장문화 운운하며 성희롱이 경직된 남녀관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잘못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희롱 문제 해결의 첫걸음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청사진과 추진방안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위해 5년이라는 대장정을 끝까지 함께 뛰었던 공대위 식구들, 변론인들,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에 서주었던 증인들, 이 사건을 여러형태로 지원해 주었던 많은 여성학자, 시민단체, 그리고 올바른 양식으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준 대법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우조교의 용기에 큰 갈채를 보낸다. ☘



# 개소 7주년 기념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숍

조중신 본 상담소 상담부장

본 상담소 개소 7주년 기념행사로 성폭력전문상담원워크숍이 지난 5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성폭력피해상담의 심화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1. 워크숍의 목적과 의의

초기에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예방과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는 전국에 38개의 성폭력전문상담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정신의학·상담학·사회복지학 등 각 전문분야에서 성폭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 상담에 유용한 상담이론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상담현장에서의 사례의 성과를 이론화하는 공동협력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상담소 상담원들이 함께 모여 현장의 보람과 고충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가지며, 성폭력상담에 유용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장을 마련하여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이 행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 2. 워크숍 참가자

본 상담소 상담원을 비롯한 전국 33개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단체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57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성폭력전문상담교육(65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경력은 1년이내 13명, 1년이상 18명, 2년이상 8명, 3년이상 8명, 4년이상 4명, 5년이상 6명이었고 연령층은 20대 후반 10명, 30대 27명, 40대 15명, 50대 5명이었다.

서로 친목과 교류를 하도록 단체별, 경력별, 연령별로 고루 조를 조정하였고 본 상담소 상담원들이 진행을 도왔다.

워크숍 시작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성폭력상담에 종사하게 된 동기·성폭력상담활동에서 어려운 점·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의 종류·워크숍에 기대하는 바 등을 파악하였고, 워크숍의 끝부분에서는 이 워크숍

에서 성취된 부분과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 평가서는 다음 워크숍 준비에 참고가 될 예정이다.

##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성폭력상담의 현황과 과제〉**—본 상담소 박금자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본 상담소 이미경 부소장의 “성폭력상담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성폭력상담의 발전과정·역할·현황 및 특성 등이 짚어졌다.

**〈사례연구와 수퍼비전〉**—이어서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은 2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는 기회는 상담자에게는 상담경력에 포함되는 가장 좋은 훈련의 기회이지만,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은 익명의 전화상담이 많고 내담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수퍼비전이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약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발표한 상담사례들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신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조하였다. 상담사례연구는 위기전화상담(가정법률상담소 평택지부 김정숙 상담위원), 피해자 후유증 심리상담(본 상담소 조혜순 상담원), 피해자 면접상담(본 상담소 유정순 책임상담원, 현혜순 상담자문위원) 등 4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심리교육센터 마음길 이철원 소장(임상심리전문가)과 정신건강센터 나우리 권진숙소장(사회복지학 박사)이 수퍼비전을 해주었다.

이 시간에는 성폭력상담에서의 특성과 한계·전화상담의 한계·어린이나 청소년피해자의 심리상담·제2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주변인에 대한 상담·안전한 분노표출기법·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계획 등이 토의되었으며, 상담의 이론과 기법을 성폭력상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인 인식화 및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중심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되었다.

**〈집단상담의 이론과 사례연구〉**—소외감과 고립감을 지닌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집단상담이나 자조집단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집단을 모으는 일이 힘들고 집단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단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워크숍 정연옥(심리상담전문가)의 집단상담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실제 피해청소년 집단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집단상담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닦았다.

**〈집단상담의 실제〉**—성폭력피해상담 중에 상담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감과 탈진을 해소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히 공감할 수 있도록 감수성훈련을 15명씩 조를 짜서 진행하였다. 심리교육센터 마음길의 이철원 소장과 박기환, 전양숙, 정연옥 연구원이 진행하였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3시간으로는 맛보기에도 부족했고 저녁식사시간으로 중간에 흐름이 단절되어 아쉬웠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피해자 집단상담·자조모임·상담원 재교육프로그램으로의 집단상담을 활성화해갈 전망이 보였다. 프로그램이 집단상담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었는데, 초보자들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더 유용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집단상담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상담자가 알아야 할 성〉**—이 시간에는 상담 중에 자주 대두되는 순결, 처녀막수술,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나타내는 성과잉행동, 자위, 이상성행동에 대해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의식, 고정관념 등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상담자의 성의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교육 캠프와 성교육 교사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이경미 연구원(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과 심창교 선생님(인하대 성전문상담위원)이 진행하였는데 너무 늦은 시각에 시간도 짧아 활발한 토의를 못한 것이 아쉬웠다.

**〈외국의 연계지원체계와 지원프로그램〉**—이원숙 소장(본상담소 부설 연구소)은 “외국의 연계지원체계와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강의에 덧붙여 좋은 의지(good will)를 가진 활동가가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진을 막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와 투자가 현실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역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연계지원상담〉**—이 시간에는 경남여성회 이경옥 소장, 원주가정법률상담소 유혜영 상담실장, 내일신문 성상담실 김선희 상담부장의 지원사례발표 후에 김현식 산부인과전문의와 소은희 정신과전문의가 의료 부문에서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면서 겪은 보람과 문제점 등을 발제하고, 남기태형사(관악경찰서)가 경찰연계와 수사과정에 대하여, 최은순변호사가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활동과 본 상담소 토요법률상담을 통하여 지원한 경험을 바탕

으로 법적지원의 방법을 발제하였다. 또한 열림터(보호시설)를 맡고 있는 본 상담소 김병숙 부장이 보호시설로 연계할 때의 유의점과, 시설내에서 피해자들의 공동체생활·집단상담·학업중단·위탁가정과의 연계의 어려움 등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지원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토로하였고, 각 여성단체들은 이를 전제로 각 지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연계망을 확보해나갈 것인가하는 과제를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토의〉**—이 시간에는 이번 워크숍에서 다룬 각 주제를 가지고 총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워크숍에서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평가하고 다음 워크숍의 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전화상담조, 면접상담조, 집단상담조, 연계지원상담조로 나누어 각 조마다 상담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안등을 협의하여 성폭력상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 4. 평가워크숍의 성과와 과제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직접 성폭력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과제가 무엇인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심리상담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여성운동단체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하는 부분들이 대두되었다. 또한 성폭력상담에서 통합적인 연계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연대도 모색되었다.

이 협의들은 상담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담 기술 훈련과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마련에 참고가 될 것이며, 성폭력 상담을 하면서 겪는 탈진과 중도포기를 막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전기가 되리라 본다.

진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나누려고 강행군하여 각 주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참가자들이 친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력을 참조하여 차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런 워크숍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마련된다면 성폭력상담자끼리 정보도 교류하고, 연대하여 지원도 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제도의 개선과 확립에도 목소리를 합하여 촉구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리고 꼼꼼히 열심히 준비하고 배려해준 본 상담소에 감사한다는 평가를 하였다. ☺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제도적 장치

임순영 본 상담소 前총무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는 성폭력·가정폭력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성폭력특별법제정과 개정, 그리고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정폭력특별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제도적으로 모양새를 이 정도 갖추었으니, 이제는 한 숨 돌리며 좀 쉬어도 될 듯 싶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애초에 목표했던 것에는 이르지 못함에서 오는 허전함 때문일까. 이에 필자는 최근에 접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적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미 우리가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답찾기를 제안하려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여성이 가하는 남성에 대한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간의 성적 폭력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의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일반적인 경향은 피해자측, 즉 피해자의 과거 성적(性)과 품행으로부터, 사건을 둘러싼 실제적인 증거로 그 수사와 재판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주들은 Rape Shield Law를 근거로, 재판을 할 때 피해자의 과거 성적 품행이나 평판이 피고인측으로부터 증거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 저항을 했음을 입증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비단 성폭력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심리 및 재판·상소 과정에서의 가해자 신변변화와 이동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거의 없지만, 1990년 전국피해자센터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26개의 교도소가 복역수감자가 출소 혹은 도주, 임시석방되는 경우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7개 주에서는 가해자의 가석방이 심사중일 때 피해자는 심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994년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폭력범죄 규제법과 시행령(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을 마련하였다. 이 중 일부분인 여성에 대한 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이하 VAWA)은 피해여성의 안전보호와 권리 보장, 그리고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그 골자로 한다. VAWA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실시하는 법령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의 동의없어도 HIV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지역사회에 등록·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화한 것은 AIDS와 성폭력의 재범을 예방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둘째, VAWA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종의 사업주는 직원 채용 시 폭력범죄나 아동학대 전과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아동보호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이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내용의 제출이나 법정진술을 거부할 권리(testimonial privilege)가 정신치료가, 의사, 성직자 등에 비해 상당히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VAWA는 어느 누가 얼마만큼 이러한 상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법무부가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이 권리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넷째, 연방정부는 8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안을 강화·수정하여 시행하는 주 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위기센터나 쉼터의 지원, 증거확보를 위한 법의학적 검사,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문검사 양성, 그리고 상담기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데 쓰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받는 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의학적 검사나 형사고발 혹은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 개인의 비용이 들지 않고 지원금에서 충당되었음을 2년 이내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특히 '가정폭력과의 전쟁을 위한 지역단속'을 목표로 하는 2천만달러 프로젝트인 CO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는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실시하는 각 경찰서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 조건으로 비영리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피해자 상담기관, 쉼터,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지역 서비스 기관과 짝을 이뤄 공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수감되었던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정신치료를 위해 석방 전에 정신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해자의 치료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마다 처한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좋아보인다고 해서 그저 따를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취사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변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 여성주의 만화가 아름다운 세상 아홉번째 천국을 찾아서

차김현수 본 상담소 야간간사

## 1. 성(成)인 만화=성(SEX)인 만화

1993년인가 처음으로 성인 순정만화 잡지가 창간되었다. 이미 남성용 성인만화 잡지는 그 시장을 완벽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고 뒤늦게 순정만화 시장도 나이별로 상당히 분화되어가는 때였으니 그건 당연한 순서였다. 나는 창간 날짜에 맞추어 바로 책을 사 읽었다. 그리고 나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성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남자들의 만화 잡지가 일반 가판대용 포르노 잡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순정만화 역시 성(sex) 일색인 잡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성이 금지되어 있고 이걸 성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금지시키지만 그나마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다. 그렇기에 성인 잡지라는 것은 보통 성관련 잡지뿐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미성년자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마지막 나이였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인은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실천적이고 좀더 당당한 존재였다. 나는 그 때의 내 또래들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는, 남자 친구와 스킨십과 스타에의 광적인 집착이 성인들의 일상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분명 성(sex 혹은 sexuality)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 2. 순정만화신데렐라 콤플렉스

보통 순정만화에는 잘 생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머리가 좋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이든 빠지지 않으나 가정적인 문제로 반항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슬픔을 감싸안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많이 예쁘지도 않고 머리가 좋지도 않으나 여리고 눈물 많고 극적인 상황에서 남자 친구를 보호하는 신화적 존재이다.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허구적 해피엔딩과 똑같은 그것을 맞이하며 끝이 난다. 성인 순정만화와 다른 점이라면 섹스 정도의 차이랄까. 전자는 키스나 포옹이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후자는 일반적 섹스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섹스란 것은 남성의 만화에 서처럼 묘사적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허구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섹스는 사랑의 완결체이며, 그것 없는 사랑은 마치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된다. 갑자기 포악해지며 키스를 하는

남자와 그것을 황홀하게 받아들이는 여자, 이것은 비단 만화에서만 나타나는 성관계의 모습은 아니다. 대중소설이 그러하고 음악이나 연극이나 어느 예술 분야에든 횡행하는 것임에도 유독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을 행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절대다수의 순정만화 작가들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을 그녀들이 그려내는 모습은 왜 그리 한결같이 끔찍한지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 3. 제9의 예술-만화, 제9의 예술 잡지(나인)

순정만화 작가들이 모두 단순한 로맨스물만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러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독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열광한다. 이걸 작가와 독자, 그리고 출판업자 모두에게 좋은 변명 거리가 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것과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는 것.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테지만 출판업자나 독자가 외면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할 터이고, 독자도 읽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테지만 독자가 무언가를 요구하기엔 아직 힘이 없다. 이걸 출판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독자로서 직접 출판과 창작을 병행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문화, 아마추어 문화 혹은 언더 문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만화 동호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 동호회들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추어 만화 동호회 연합(일명 ACA)은 이미 힘을 행사하는 이익 집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드디어는 매니아를 위한 영화가 성공을 하는 때와 비슷하게 매니아를 위한 만화 잡지들이 붐을 이루며 창간되기 시작했다. 그 중 유일한 순정만화 무크지인 'MIX'는 보통의 순정만화라는 틀을 거의 깨부수기까지 했다. 여성의 경험을 통쾌하게 그려내는 작가도 등장했다. 그리고는 이름조차 사라졌던 성인용 순정만화 잡지가 창간되었다.

'순정 만화라면 일단은 그림이 예뻐야... 작가가 진이 유명해야... 눈물나는 만화는 꼭 있어야... 삼각 관계는 있어야...'

(<나인> 001호 17p.)

지난 1월 IMF한파가 거센 세상에 선보인 잡지, <나인>이 제기하



는 문제점들이다. 위의 요구들을 벗어나 자유를 컨셉으로 잡은 <나인>, 사실 나는 예전의 상처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먼저 느꼈고, 기대를 접은 만큼 나는 많은 안도를 할 수 있었다. 구성되어 있는 만화들은 그다지 발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이미 성인인 작가들의 이야기를 조금더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이기에 상처받은 그녀들의 이야기가 장르에 상관없이 녹아들어 있었고, 기자들의 생각을 적어 놓은 페이지에는 여느 잡지와는 달리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4. 아홉번째 신화 내가 바라는 세상**

물론 아직 작가들조차 자신들의 억압의 경험을 풀어놓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혼동을 거듭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들 역시 어색함을 느끼며 출판업자 또한 위기를 느낄지도 모른다. 여성 만화라고

자신있게 용어를 붙인 것에 대해 일반적 시각도 좋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얼마 전까지 흔히 등장했던,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식의 상품화라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겨우 시작을 한 거다. 어쩌하였든 섹스가 성인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을 접은 잡지는 이제 창간되었고, 처음부터 완벽한 여성주의 만화가 나오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선 만들어진 출구를 작가와 독자는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고, 이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를 한다. 진정한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여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며 스스로의 억압에 대해 고민하고 그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 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여성운동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순정 만화 작가들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빼먹지 말자**



(《나인》001호 95p.)

**[책소개]**

(이번호부터 새로 마련된 '책 소개'란에서는 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내어 소개합니다)

**케이크를 굽는 여자**

마가렛 애트우드 지음 (새와물고기, 1993)

이 소설은 <핸드메이드>로 유명한 여성주의 소설가 마가렛 애트우드의 작품으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권할 만하다. 한 평범한 여자(마리안)가 결혼을 앞두고 겪게되는 정신적 환골탈태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어느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남성세계의 폭력을 감지하고,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심리적 종속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언어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소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된다.

**한국여성 소설선1**

(잡인출판사, 1991)

최근 여성작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우리 문학사에는 문단의 남성우월주의적 시각과 비주류로서의 여성작가에 대한 폄하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작가들의 활동이 있었다. 여성작가들의 글은 2, 30년대 잡지에 발표된 이래 재록이 되거나 창작집에 수록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외되었던 여성문학을 새로운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1권에는 해방 전, 식민지 시기의 여성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현실과 식민지 상황이라는 이중적 억압 속에서 여성의 근대적 각성과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소설화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노동과 모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교하여 생각해볼 만하다.

(김보연:나눔터 기자 정리)



# 단풍나라 사람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예의'

김명륜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부장



작년, 난 스물여덟이란 어리지 않은 나이에 어학연수를 떠났다. 우리나라에 IMF라는 흉칙한 귀신이 찾아올 미래를 예감이라도 한 듯, 하던 일도 팽개치고 부랴부랴 외국행 막차를 잡아탔다. 반미감정으로 점철되었던 이십대 초반을 보냈던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출국, 만 하루를 꼬박 날아서야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 대한 나의 사전지식은 국기에 단풍잎이 들어간다는 것과 영어와 불어 모두가 공용어라는 사실 뿐이었다. 그리고 많이 춥다는 것! 그러나 그리 길지 않았던 몇 개월의 생활은 캐나다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그곳 사람들은 내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내게 진정한 예의란 무엇인지 가슴으로 보여주었다. 캐나다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뀐 반면, 한국인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니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현상들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그 일은 조그만 사건에서 시작한다.

눈이 오던 가을, 우리 아파트의 Manager이자 나의 친구인 Vic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집 앞의 Pub에서 아주 괜찮은 한국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보고 싶지 않냐는 전화였다. 한국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나는 한결음에 달려갔다. Charles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의 한국이름은 철수, 33살이라고 했다. 내 친구와 우연이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다가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내 친구는 물론 캐나다사람이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내가 보기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별명인 별명을 알고 있었고, 언제나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 있는 한국친구라곤 두명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난 찰스인지 철수인지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말을 하는 중간중간 어깨와 허벅지, 등을 은근슬쩍 건드리는 그 한국인 남자. "남자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용서되었던 한국의 관습이 몸에 배이다 못해 찌들어버린 사람같았다. 몇번의 접촉에 불쾌해져 "나는 동네북이 아니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조용히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친구가 "괜찮냐"며 나의 심기를 살폈다. 그냥 좀 불편해서 그렇다고 했고 잠시 후 나의 친구는 화장실엘 가며 철수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다.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철수는 또다시 나의 등에 손을 얹었고 슬쩍슬쩍 쓰다듬었다. 나는 '소리를

지를까? 손을 비틀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가버릴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오다 그 장면을 목격하니 나의 친구의 행동은 지금까지 내 기억 속의 사람들의 반응과 사뭇 달랐다. 그는 정중하고 분명하게 철수에게 말했다.

"지금 너의 행동은 성희롱이야. 네가 멈추지 않고 이 행동을 계속 한다면 나나 이 술집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할 것이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녀를 건드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넌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 순간 난 대학교 2학년때의 일이 떠올랐다. 선배와 동기 한 무리가 왁자하게 학교 앞 선술집을 메웠던 그 날, 한 선배는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허벅지, 등, 어깨를 친친히 쓰다듬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나 좀 건드리지마!"라고 고함을 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아닌 내게 쏠렸다. 그러곤 나에게 붙은 별명은 "너무 진지한 여자". 아마 그들은 "그래서 분위기를 깨는 여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철수는 분노인지, 황당함인지 모를 얼굴을 하곤 "그래 좋아 좋아. 경찰서, 감옥 가지 뭐. 나 가고 싶다!"라고 영어로 외쳤다. 난 화가 나기 보다는 무척 창피했다.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했다. 그런 철수가 한국에서는 몇백만명도 넘게 있다는, 그 상황을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다. 얼마 후 나와 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철수가 내게 말했다.

"넌 좀 있다가 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지금 같이 가는데 안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말을 내뱉었다.

"한국사람도 아닌 저 녀석과 같이 나간다는 건 기분 나빠. 위험할 지도 몰라. 넌 오늘밤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당신과 여기 같이 남는 것보다 저 사람과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심이 되는군요." 잔에 남아 있던 맥주를 바지에 부어주고 돌아서 나왔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몇 년전 교수에 의한 성희롱을 국내 최초로 법적으로 문제제기한 한 조교에게 우리 사회는 되발아지고 예의없는 여자라는 오명을 돌려주었다. 다행히 얼마전 대법원에서 해당교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판결이 남아 있다. 그 날 이후로 내 캐나다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인이 예의바르다는 평가는 남자와 남자, 특히 상대가 돈이나 권력을 가졌을 경우일 뿐인 것 같아. 상대방이 힘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특히나 여자이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란 지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 성별, 피부색깔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 특히나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고야 마는 그들의 행동은 큰 가르침으로 나를 깨웠다.

캐나다는 단풍의 나라다. 7개월 열흘을 보내고 발렌타인데이에 한국으로 돌아와, 나는 캐나다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곳의 자연을 사랑하고 그곳 사람들, 특히나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늘 하던 얘기로 이만 맺을까 한다.

"나의 조국은 참 살아가기 힘든 곳이야.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몇배를 열심히 뛰어야 겨우 비슷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 하지만 난 내 조국을 사랑해. 왜냐면 우리는 바꿀 수 있거든. 희망이 있는 민족이지. 또 고쳐야 하는 것이 있으니 살 맛이 나잖아?" 유



나눔터개시판

**새로 오신 회원과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원>** 권수현, 권진숙, 김병준, 김현란, 김혜숙, 민웅기, 박준화, 변인희, 오정현, 유수아, 이규화, 이영분, 조정현, 최미영, 최지너, 허은하  
**<후원회원>** 김기숙, 김경희, 김일륜, 노혜정, 유숙영, 윤기용, 윤미라, 이푸른매, 정경란, 최봉화, 최유정

**기부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박금자

**일림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락형, 이소연, 이희숙, 정유석

**14기나눔이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시훈, 김동욱, 김시나, 레베카, 송지영, 오희옥, 염주희, 윤홍순, 임인숙, 정수연, 최봉화, 허은하, 홍은경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 (7월 출시예정, 서울시여성발전기금사업) 제작을 위해 (주) 에스원에서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상담소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10일:본 상담소 주관 정신대수요시위  
 6월 26일:본 상담소 전체 야유회  
 7월: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 출시기념 시사회  
 7월 27-28일: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1주년기념 성교육교사 워크샵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문의: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1만 6천여 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별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별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애'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가 7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 구입문의 : 이윤상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 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02)576-7128

● **이시강** 학중·문해란·민병진·박금자·오세민·윤장순·이종길·조영환·최영애 ● **김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상담** 인간재활화/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정연옥 심리학/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채규만 사회화/장영복 사회복지학/한인영·현혜순 법률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백수·이상경·이유정·이종길·이향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정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 경찰/김강자 **의료** 가정의학과/김종구 법의학/장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경자·박금자·박양실·박종민·윤경·이길여·이옥주·임용택·정경원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장정옥·문해란 **PC상담**가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홍보 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화찬 조소/홍성도 **재정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세무사/차재능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윤장순 **교육** 교사/김성에·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 사회복지학/신필균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김은실·변혜경·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진숙·산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박진숙 영화평론가/변재란 ● **대표이사** 박금자 ● **소장** 최영애